

보건복지 소식 광장



보건복지 소식 광장

보건복지부 2024년 8월 보도자료(<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mid=a10503010100&bid=0027>)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임.



I

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'복지로'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

- 8월 2일부터 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가능 -

- 8월 2일(금)부터 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.
- 그간 전산시스템의 기능적 한계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온라인 신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, 복지로 기능 개선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.
- 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등* 대리신청인은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'서비스 신청' > '복지급여 신청' > '장애인'에서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는 '장애(아동)수당(생계·의료급여)'를 선택하고, 그 외의 사람들은 '장애(아동)수당(차상위 등)'을 선택하면 된다.

* 복지로 온라인 대리신청 가능 범위 : 배우자, 부모, 자녀, 자녀의 배우자, 형제·자매
-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나 차상위계층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'장애(아동)수당(차상위 등)'의 선정과정 중 소득·재산조사를 통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의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. 또한, 알림창으로 뜨는 맞춤형 급여(복지멤버십)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복지급여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.

- 한편, 보건복지부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*을, 장애아동을 대상으로는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.

* 중증장애인에겐 장애인연금 지급, 중증·경증 구분은 「장애인연금법」을 따름

- 장애수당은 ① 18세 이상 ② 경증장애인 중 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 또는 차상위계층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을 대상으로 월 6만 원이 지원된다.
장애아동수당은 ① 18세 미만 ② 장애아동(중증·경증) 중 ③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) 또는 차상위계층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을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 원이 지원된다.

〈 2024년 장애아동수당 급여액 〉

구분	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		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
		보장시설 거주자	
중증(중전 1, 2, 3급 중복)	월 22만 원	월 9만 원	월 17만 원
경증(중전 3-6급)	월 11만 원	월 3만 원	월 11만 원

- 보건복지부 황승현 장애인정책국장은 “이번 복지로의 기능 개선을 통해 직접 방문 신청이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들의 급여 신청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.”라며, “앞으로도 국민들이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해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※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 22243. 장애인자립기반과. 2024. 8. 2.

II

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, 예방부터 지원까지 민관이 협력

- 정부 6개 부처와 종교계, 재계, 노동계, 언론계, 전문가, 협력기관 등 37개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(8.6.) 개최 -
- 2024년 1~5월 자살사망자 6,375명(잠정) 관련 동향 등 대응 방안 논의 -

- 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8월 6일(화) 오후 2시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(서울시 중구)에서 「제7차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」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- 「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」는 지난 2018년도부터 구성·운영된 협의체로써, 자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범하였다. 협의회에는 종교계와 재계, 노동계, 학계, 언론계 등 37개 민간기관들과 보건복지부, 교육부, 문화체육관광부, 고용노동부, 여성가족부, 경찰청 등 6개 정부 부처(청)이 참여 중이며,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이 공동위원장이자.
- 「제7차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」에는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과 공동위원장인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,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정부 부처와 종교계, 재계, 노동계, 언론계 등 각 분야의 대표 등 34명이 참석하였다.
-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3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의 자살사망 동향과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다. 2023년 자살사망자 수는 13,770명이고,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자살사망자 수는 총 6,375명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10.1% 증가하여 올해 자살 사망자 수도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임을 공유하였다.
- 정부는 자살예방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들을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협력해야 할 내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.

〈 자살예방 주요 추진 과제〉

▲ 자살예방실천메시지 홍보, ▲ 모방자살 방지를 위한 보도 환경 개선, ▲ 인식개선을 위한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, ▲ 자살 수단 관리 강화, ▲ 자살 시도자 등 (자살 고위험군) 발굴 강화, ▲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(자살 고위험군) 사후관리사업 참여, ▲ 자살시도자(자살 고위험군) 서비스 제공 강화, ▲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안정적 운영과 창구 다양화, ▲ 지역 기반 자살 예방 활성화, ▲ 데이터 확보·연계를 통한 자살 원인 분석

■ 그리고 ▲ 종교계의 7대종단의 생명사랑희망메시지 영상 제작 및 대국민 캠페인 ▲ 재·노동계의 청년층 대상 자살예방사업 홍보 및 생명존중 콘서트 ▲ 언론계의 자살예방 보도환경개선을 위한 기자 교육 및 캠페인 ▲ 학계의 자살예방인식개선을 위한 학술활동 ▲ 협력기관별 특성을 살린 생명존중 인식개선활동 등 각 참여기관의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였다.

■ 또한 참여기관 중 하나인 사회복지법인 '생명의전화'에서 자살예방의 날(매년 9월 10일)을 맞이하여, 9월 7일부터 8일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인식개선 캠페인 중 하나로 개최 예정인 '생명사랑 밤길걷기'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, 협의회에서는 자살 예방의 메시지 전달과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써 행사 지원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.

■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“정부는 어느 때보다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”라며, “오늘 협의회에서는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으며, 앞으로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자살 문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 22248. 자살예방정책과. 2024. 8. 6.

Ⅲ

한-아세안, 디지털헬스를 통한 역내 보건 분야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 채택

- 조규홍 장관, 한-아세안 보건장관회의 등 참석 -

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9일(금)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제2차 한-아세안* 보건장관회의 및 제10차 아세안+3(한일중) 보건장관회의에 연이어 참석하여 디지털헬스를 통한 역내 보건안보 강화와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.

■ 동남아 국가연합인 아세안*은 역내의 보건 분야 협력 방안 및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, 일본, 중국 등 대화상대국들과 매 2년마다 보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. 올해는 '04년 아세안+3, '22년 한-아세안 보건장관회의가 창설된 이후 우리나라가 한-아세안 및 아세안+3 보건장관회의 두 회의체의 공동의장국을 맡은 최초의 해이다.

* ASEAN(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) : 총10개국(브루나이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필리핀, 싱가포르, 태국, 베트남)

** 주요회의 : 아세안, 한-아세안, 아세안+3(한일중), 미-아세안, 중-아세안 등

■ 이번 회의에서는 '새로운 맥락에서의 아세안 보건 개발 회복력 전환(Transforming ASEAN Health Development Resilience in a New Context)'을 주제로 각국의 정책 경험과 역내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.

■ 한-아세안 보건장관회의에서 조 장관은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, 새로운 공중보건위기 등 급속히 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. 또한 이 분야에서 한국이 가진 역량을 활용한 미래 협력 비전을 제안하였다. 보건복지부는 이 비전을 바탕으로 「아세안 보건 분야 디지털 전환 전략」을 수립하여 아세안 회원국의 보건의료 시스템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.

■ 아세안+3 보건장관회의에서 조 장관은 팬데믹 이후 국경을 넘나드는 보건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이 WHO 글로벌 인력양성허브 운영, 감염병 역량강화, 디지털헬스 분야 협력 등 보건안보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

속할 것을 강조하였다. 아울러, 정신건강 증진과 항생제 내성 관리 분야의 협력 등 새로운 보건 분야로의 협력 확장을 제안하였다.

-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분평 품말레이시스 라오스 보건부 장관, 부디 구나디 사디킨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 등 아세안 회원국 대표들은 한국이 제시한 비전에 지지를 표하였으며, 관련 내용은 각각 공동선언문으로 채택되었다.
- 조 장관은 “올해 한-아세안 대화 3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양측 보건 분야 협력을 이행하여 역내 모두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참고 한-아세안, 아세안+3 보건장관회의 공동선언문 주요내용

① 제2차 한-아세안 보건장관회의

- 2024.8.9. 제2차 한-아세안 보건장관회의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되었다.
- 한-아세안 양측은 2022.5월에 개최된 제1차 장관회의가 양측간 보건협력의 새 장을 열었다는 데 공감하고, 한국측이 추진한 여러 對아세안 협력사업이 역내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보건시스템 강화에 기여하였음을 평가하였다.
- 한-아세안 양측은 보건의료의 디지털 전환에 중점을 둔 “새로운 맥락의 아세안 보건 개발 복원력 전환”을 위해 다음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:
 - 1) 보건의료 인력 대상 보건 빅데이터 및 정보시스템 관리 및 분석 등, 디지털 교육을 통한 인적 역량강화
 - 2) 한국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아세안 회원국 대상 국별 특화 보건 정보화 전략 수립 지원
 - 3) 아세안 보건 분야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을 통해 아세안의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화 등에 기여
 - 4)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력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한-아세안 간 정기적인 세미나 활성화 등 소통 채널 통합-강화
 - 5) 한-아세안 협력 프로젝트 진행시 “아세안 포스트 2015 보건 개발 아젠다” 내 각 클러스터 별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

② 제10차 아세안+3 보건장관회의

- 2024.8.9. 제10차 아세안+3 보건장관회의가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최되었다.
- 아세안 및 한일중 보건장관들은 2004.4월에 개최된 제1차 장관 회의 이후 20년간 아세안 및 한일중 3국이 세계화에 따른 보건 분야 도전과제 및 국경을 초월한 질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한 점을 평가하였다.
- 아세안 및 한일중 보건장관들은 금번 장관회의의 주제인 “팬데믹 이후 국경을 초월하는 보건비상사태에 대비, 디지털 혁신을 통한 아세안 보건 안보 강화”를 위해 다음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:
 - 1) 13차 아세안+3 고위급회의에서 식별된 분야(비전염성 질환의 예방 및 통제, 정신건강, 질병 감시 및 백신안보, 항생제 내성 대응, 원헬스(One Health) 이니셔티브 추진 등등)의 협력 심화
 - 2) 미래 보건위기 대응 및 시스템 강화를 위한 아세안 바이오- 디아스포라 사업, 아세안+3 현장역학조사 훈련 네트워크 사업 등 기존의 아세안+3 매커니즘 극대화
 - 3) 질병감시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, 보건 관련 사이버보안 등 신규 협력 사업 모색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통한 아세안 및 한일중 3국의 보건안보 역량강화
 - 4) 감염병 통제, 백신-진단기기-치료제 개발, 보건서비스 전달체계 구축, 비전염성 질환의 예방 및 통제 등, 지역 보건 우선과제 해결을 위해 신기술 및 혁신을 도모하는 공동 R&D 장려
 - 5) 교육훈련 및 노하우 공유, 기술교류 등을 통해 보건인력 역량 노력 지속 강화 도모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 22258. 국제협력담당관. 2024. 8. 9.

IV

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, 고립,은둔청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

- 8월 14일 인천, 울산, 충북, 전북 4개 광역시·도에 청년미래센터 개소 -
- 전담 인력이 가족돌봄, 고립·은둔청년 발굴 및 밀착 사례관리 실시 -

- 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8월 14일(수) 인천, 울산, 충북, 전북 4개 광역시·도에 ‘청년미래센터’가 개소된다고 밝혔다.

* 청년미래센터 운영기관 : (인천 미추홀구) 인천사회서비스원, (울산 중구)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, (전북 전주시) 전북사회서비스원, (충북 청주시) 충북기업진흥원

- 청년미래센터는 지역사회 내 가족돌봄*, 고립·은둔청년**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. 센터당 14명의 전문인력들이 신규 배치되어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발굴하고, 취약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밀착 사례관리한다.

* 가족돌봄청년 :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13~34세 청(소)년

** 고립·은둔청년 :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거나, 집 또는 방에서 나오지 않는 19~39세 청년

1. 신청접수

- 4개 광역시·도 내 가족돌봄, 고립·은둔청년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(www.mohw2030.co.kr), 홈페이지는 복지종합포털인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. 도움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인근 읍면동이나 청년미래센터에 직접 방문해서도 상담 및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.

2. 청년미래센터 전담 서비스 지원

가. 가족돌봄청년 지원

- 이전까지 학교나 병원 등에서 가족돌봄청(소)년을 발견하더라도 어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했다면, 이제는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청(소)년을 발굴하고, 자립 시까지 책임지고 지속해서 밀착 관리한다.

- 청년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해서도 소통교육, 심리상담, 자조모임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, 청년과 가족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.

다. 취약청년 발굴 및 민·관 자원 연계 허브 역할

- 청년 개개인의 성장, 회복을 목표로, 청년미래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·제공하는 사례관리 및 맞춤형 프로그램 외에도 취업·학업 정보, 민간의 장학사업 등 다양한 민·관 자원을 청년들에게 연계한다.
- 이번 시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월드비전*, IBK 기업은행 행복나눔재단** 등 민간기관들의 자체 사업도 연계될 예정이다. 보건복지부는 향후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폭넓게 발굴·지원하기 위해 다른 민간기관들과도 협업 관계를 지속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.

* 월드비전 가족돌봄청(소)년 통합지원사업 : (통합지원)생계비·주거비·돌봄비·교육비 등, (심리지원)자조모임

** IBK희망나래 사업 : 다문화가족 자녀, 자립준비청년, 고립·은둔청년, 가족돌봄청년에게 취업·학업 지원 프로그램 및 생활비, 장학금 등 지원

-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“청년미래센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족돌봄, 고립·은둔청년만을 위한 전담 지원기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”라면서 “이전까지는 취약 청년들에게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제공해야 할지 막막했다면, 앞으로는 청년미래센터에서 이들이 자립할 때까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다.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이 순간의 어려움을 딛고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주위의 많은 관심과 다양한 민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”라고 당부하였다.

※ 자료: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「알림-보도자료」 22272. 청년정책팀. 2024. 8. 14.